Ⅳ. 한-폴 경제 교류현황 및 협력방안

1.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현황

가. 교역 현황

□ 우리나라 외환위기 전까지 지속적 교역규모 증가

○ 1990년 한국-폴란드 무역협정[42] 발효로 양국간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64% 증가하였고, 1991년까지도 동 증가세가 이어져 양국간 교역규모는 4.4억 달러에 이르렀음.

○ 1992년에는 폴란드 경기 침체의 여파로 수출입이 모두 전년의 절반 이하 규모로 축소되면서 교역규모 증가율이 -120%를 기록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1993년부터 수출이 다시 증가하고, 1994년부터는 수입도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이전까지 연간 25%이상의 지속적인 교역규모 증가를 보였음.

42) 1989년 11월 체결되었으며, 2004년 폴란드의 EU 가입과 함께 종료되었음.

□ 1990년대 중반 폴란드 투자진출이 수출증가 요인

○ 특히, 1995~97년 중 수출이 연평균 39%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의 대 폴란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997년 11.4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고, 아시아 국가 중 대 폴란드 수출규모 1위를 차지하였음.

– 이는 대 폴란드 직접투자 진출에 따른 기계설비 및 원부자재 수출이 급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외환위기 여파로 교역규모 감소

○ 1998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기 악화는 수출입 부문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양국간 교역규모가 2001년까지는 매년 감소(연평균 -40%)하였고, 이에 2001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3.8억 달러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었음.

□ 폴란드의 EU 가입이후 대 폴란드 수출 급증

○ 2002년부터 다시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특히 2004년 폴란드의 EU 가입과 함께 대 폴란드 수출품목이 관세인하 효과[43]를 누리게 되고,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도 증대됨에 따라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였음.

– 이에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7년 38.1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1년의 10배 규모임.

43) 평균 수입관세율이 9.6%에서 EU 평균치인 3.6% 수준으로 인하되었고, TV부품, 휴대전화기, 선박용 엔진 등 대부분의 대 폴란드 수출품목이 관세인하 효과를 누렸음.

○ 폴란드는 한국의 25위 수출상대국·57위 수입상대국이며(2008년 기준), 한국은 폴란드의 15위 수입상대국·38위 수출상대국임(2007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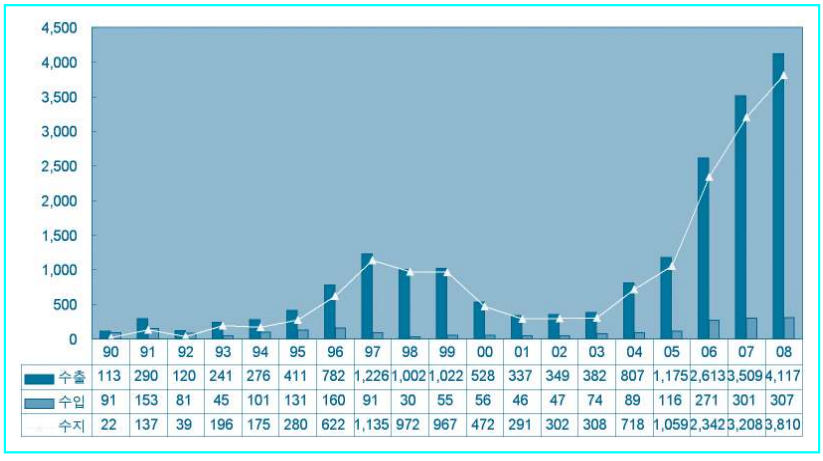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폴란드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기조 유지

○ 양국간 무역수지는 우리나라가 꾸준히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1997년 무역수지 흑자 규모 10억 달러 초과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1년에는 흑자 규모가 2.9억 달러까지 축소되었으나, 2005년 다시 10.6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2008년에는 38.1억 달러에 이르렀음.

○ 2004년 이후 매년 대 폴란드 수출은 수입의 10배에 가까운 규모를 기록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 폴란드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단기간에 변화될 가능성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Ⅳ-1> 대 폴란드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수출	113	290	120	241	276	411	782	1,226	1,002	1,022	528	337	349	382	807	1,175	2,613	3,509	4,117
수입	91	153	81	45	101	131	160	91	30	55	56	46	47	74	89	116	271	301	307
수지	22	137	39	196	175	280	622	1,135	972	967	472	291	302	308	718	1,059	2,342	3,208	3,81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현지 진출업체에 대한 수출이 대부분

○ 우리나라의 대 폴란드 수출은 주로 현지 진출업체의 생산용 원부자재, 고가 소비재 제품 등으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5천만 달러 이상의 연간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품목은 영상기기, 자동차 및 그 부품, 무선통신기기, 컴퓨터으로 조사[44]됨.

○ 한편, 2005년까지는 인조장섬유직물, 합성수지, 의류 등이 그 뒤를 잇는 주요 수출품목 이었으나, 2006년 이후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광학기기, 금형, 철강판 등으로 주요 수출품목 전환이 있었음.

- 이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현지 전자제품 제조업체의 생산 확대, 설비 증설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2008년 주요 수출품목은 폴란드내 수요 형태에 따라 2가지로 구분 가능함.

- 첫째, LG디스플레이의 LCD 부품(광학기기, 영상기기 및 평판디스플레이센서), GM 대우 협력업체들의 자동차부품, POSCO의 철강원자재(금형, 철강판) 수출은 폴란드 진출 생산법인의 원부자재 수입과 관련됨.

- 둘째, 자동차 수출의 경우 현대기아차 폴란드 판매법인의 수입수요가 상당하고, 무선통신기기는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폴란드 판매법인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 패턴이 일반적임.

---

44) MTI 3단위 기준

□ 육류 및 자동차·기계부품이 최대 수입품목 구성

○ 2004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 폴란드 수입은 육류 및 자동차부품이 연간 수입규모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기계부품의 수입이 추가되어 3대 수입품목(총 수입규모의 40%이상 차지)을 이루고 있음.

○ 2006년부터 유럽계 인테리어 소품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도자기 및 동제품 등의 수입도 증가하고 있음.

○ 자동차부품 수입의 대부분은 FSO(대우)와 동반 진출한 한국델파이 등의 생산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폴란드의 육류 중 주로 돈육이 수입되고 있고, 가금류 수입은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검사기준 및 수입허용, 한-EU FTA체결 여부 등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표 Ⅳ-1> 대 폴란드 품목별 수출입 규모
(2008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 출		수 입	
1	광학기기	1,199	자동차부품	88
2	영상기기	672	기계부품	32
3	자동차부품	379	육류	26
4	무선통신기기	282	주단조품	15
5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73	운반하역기계	13
6	컴퓨터	240	동제품	12
7	자동차	191	기타기계류	11
8	철강판	91	타일및도자기제품	10
9	조명기기	74	조명기기	8
10	반도체	70	의류	7
	수출 총계	4,117	수입 총계	307

주: MTI 3단위 기준 품목 분류
자료: <그림 Ⅳ-1>과 같음.

나. 해외직접투자 현황

(1) 폴란드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연도별 유입 추이>

□ 1990년대 후반 민영화 추진을 통한 FDI 유입 급증

○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발표 통계에 따르면, 1990년 이전까지 폴란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누계실적은 2.2억 달러로 매우 저조한 편임.

○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폴란드의 고도성장 및 OECD('96), NATO('99) 가입에 따른 투자환경 개선으로 FDI 유입실적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FDI 유입은 경기과열에 따른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대부분 보전하는 형태를 취함.

○ 1998년 5월, 폴란드 정부는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고, 2001년까지 제조업은 물론 통신·금융·항공 등 인프라 산업까지 포괄하는 민영화를 추진하여 이 시기 FDI 유입은 대부분 민영화관련 투자가 주를 이루었음.

□ 2000년대 초반 민영화 부진에 따른 FDI 유입 부진

-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민주좌파연맹(Democratic Left Alliance: SLD)의 집권에 따른 민영화 추진 지연 및 국제경제 환경 악화로 FDI 유입이 부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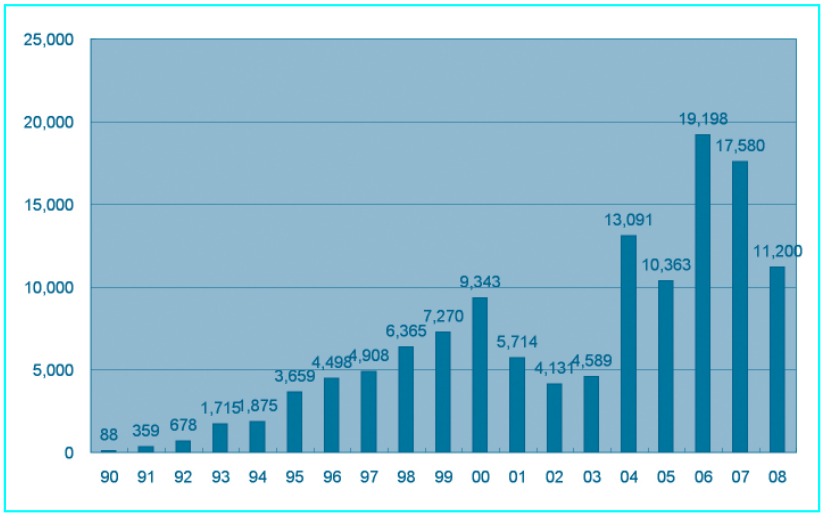
□ 2004년 이후 매년 100억 달러 이상 FDI 유입 지속

○ 2004년 EU 가입은 폴란드 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 및 투자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었으며, FDI 유입액은 사상 최고치인 131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전년 대비 185%)함.

○ 풍부한 숙련 저임 노동력, 유럽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으로 2007년까지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FDI 유입이 지속되었으나, 2008년 연중 FDI 유입액은 112억 유로로 전년의 166억 유로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폴란드 중앙은행은 발표함.

<그림 Ⅳ-2> 폴란드의 연도별 FDI 유입 추이

(단위: 백만 유로)



자료: UNCTAD, FDI Interactive Database

<산업별 유입 추이>

□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유입 집중

○ 폴란드 중앙은행이 발표한 2004~07년 중 산업별 FDI 유입액 통계를 보면, 제조업 비중이 29%로 가장 크고, 부동산·사업서비스(전산, R&D, BPO 등) 23%, 금융업 16% 순임.

○ 제조업 중 투자집중 분야는 금속(제조업 중 비중 21%), 자동차(15%), 제지·인쇄(11%), 고무·플라스틱(10%), 식료품(9%) 등이며, 제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한편, 폴란드 부동산 경기호조, BPO[45] 분야에 대한 유치 노력에 힘입어 2006~07년 중에는 부동산·사업서비스 분야의 투자유입 규모가 현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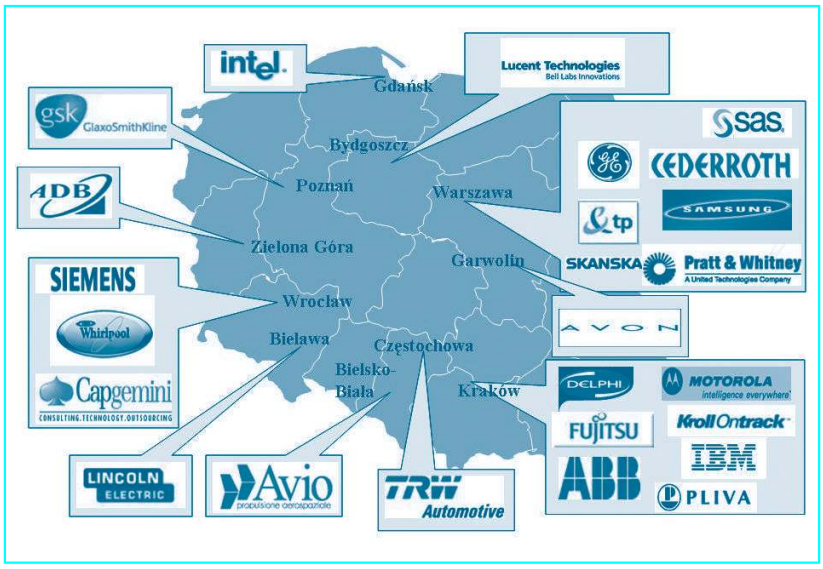
□ 폴란드는 자동차, R&D, 식료품 분야 투자 희망

○ 폴란드 투자청에 따르면, 최대 단일 투자자는 통신 분야에 투자한 France Telecom이며, General Motors, Fiat, Volkswagen 등 자동차 분야 외국인투자 기업이 폴란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폴란드는 지속적인 자동차 부문 제조업 투자 및 R&D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고 있으며, 성장단계에 있는 식료품 가공 분야의 투자유치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45) BPO는 Business Process Outsourcing의 약자로 구매·인사·CRM 등 기업 업무 프로세스 일부를 위탁 수행하는 서비스

<그림 Ⅳ-3> R&D 분야 FDI 유치 현황



자료: 폴란드 투자청(PAIilZ).

<표 Ⅳ-2> 폴란드의 산업별 FDI 유입 추이

(단위: 백만 유로)

산 업	2004	2005	2006	2007
농업·어업	66.9	38.7	45.0	85.5
광업	16.2	4.7	12.7	51.0
제조업	3,563.1	2,310.6	3,738.7	4,946.9
금속제품	704.8	392.4	740.2	1,232.5
자동차	757.9	325.1	466.6	662.2
제지·인쇄	596.4	65.4	366.4	580.2
고무·플라스틱	223.2	307.0	535.5	445.4
화학제품	330.0	-19.2	534.3	327.0
식료품	209.4	405.2	394.3	304.2
기계제품	148.9	336.6	168.0	290.9
라디오·TV·통신장비	52.4	26.0	226.9	272.8
사무기기류·컴퓨터	11.2	-1.0	18.2	179.2
기타수송장비	53.8	37.7	191.1	139.0
섬유·의류	14.6	-2.1	3.6	14.3
정유	12.9	20.1	26.9	0.8
전기·가스·수도	625.7	193.6	77.6	454.7
건설	202.8	93.5	415.6	384.0
도소매·수선업	1,350.6	2,045.9	2,540.4	2,158.0
호텔·요식업	-12.0	9.5	36.8	108.2
수송·통신업	1,761.5	-333.5	916.3	611.9
금융업	1,811.9	2,408.4	1,652.3	2,495.0
부동산·사업서비스업	923.3	1,323.3	5,157.4	4,089.1
기타 서비스업	-142.9	-171.0	74.2	135.5
합 계	10,304.8	8,259.9	15,575.9	16,582.1

자료: 폴란드 중앙은행(NBP).

<투자국별 유입 추이>

□ EU 회원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가장 큰 비중

○ 대 폴란드 FDI 국가로는 EU 회원국(2007년 총 유입액 85.3%), 미국 및 일본 등이 대부분을 차지함.

○ 2007년 국가별 대 폴란드 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독일이 투자액 28억 2,828만 유로로 1위이고, 프랑스 17억 7,870만 유로, 네덜란드 17억 3,820만 유로로 각각 2위 및 3위를 차지하였음.

○ 한편, 폴란드 투자청(PAIiIZ)의 주도로 시행된 직접투자는 영국이 투자액 5억 3,800만 유로로 1위이며, 독일 및 일본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

<표 Ⅳ-3> 대 폴란드 주요 직접투자국

(단위: 백만 유로)

순위	2006년 투자액		2007년 투자액	
1	룩 셈 부 르 크	3,572.8	독 일	2,828.2
2	독 일	2,707.4	프 랑 스	1,778.7
3	네 덜 란 드	1,303.0	네 덜 란 드	1,738.2
4	영 국	1,170.1	룩 셈 부 르 크	1,006.2
5	스 페 인	1,124.5	오 스 트 리 아	904.5
6	스 위 스	518.8	미 국	834.6
7	미 국	407.4	스 웨 덴	813.2
8	한 국	393.4	영 국	613.1
9	일 본	251.9	스 페 인	574.0
10	스 웨 덴	250.7	몰 타	561.8

자료: <표 V-3>과 같음

<표 Ⅳ-4> 폴란드의 주요 FDI 유치 실적(2007~2008)

(단위: 백만 유로, 명)

연도	투자기업	투자국	분야	투자액	고용인원
2007	Dell	미국	전자	200	3,000
	Johnson Controls	미국	자동차	36.1	1,000
	P & G	미국	화학	37	210
	TPV Technology	중국	전자	40.7	1,200
	Toshiba	일본	전자	42.8	1,006
	Funai	일본	전자	18	500
	Indesit	이탈리아	전자	77.7	1,313
	ABN Amro	네덜란드	BPO	4.3	590
	Reuters	스위스	BPO	1.7	300
2008	Mondi	영국	제지	280	140
	Cadbury	영국	식료품	256.7	750
	ADPF	일본-독일	자동차	150	700
	Lafarge	프랑스	건설	115	625
	Lenovo	중국	전자	4	1,276
	Zensar Technologies	인도	BPO	1.8	350
	First Data Corporation	미국	BPO	3	400
	Google	미국	BPO	1.5	270
	General Electric	미국	금융	581	..
	Allianz	독일	금융	200	..
	Carlo Tassara	이탈리아	금융	332	..
	Vattenfall	스웨덴	전력	367	..

자료: PAIiIZ 및 EIU, *Country Commerce*, 2008.

(2) 우리기업의 대폴란드 직접투자 현황

□ 1990년대 중반 및 2006년 투자 급증

○ 1990년대 초반까지 미미한 수준이던 대 폴란드 해외직접투자는 동유럽 시장의 성장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대우그룹의 자동차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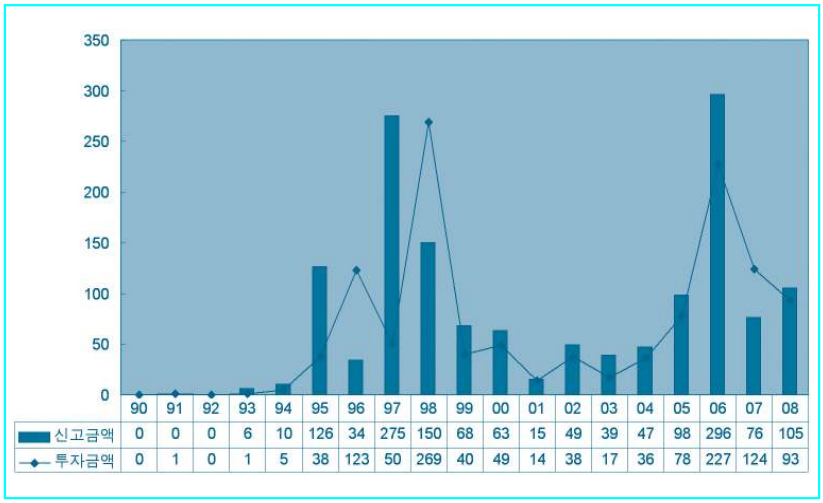
전자제품 생산 현지법인 설립으로 인해 1990년대 중반 그 규모가 급증하였음.

○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로 인해 2000년대 초반 다시 투자규모가 축소되었으나, 폴란드의 EU 가입이후 많은 우리 기업들이 유럽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전략의 일환으로 현지투자를 추진함.

○ 폴란드 투자청 발표에 따르면, 2004년말 누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1억 7천만 달러[46]를 투자하여 아시아 국가 중 최대 투자국이 되었으며, 2005년 LG필립스 LCD는 당시 폴란드 투자건 중 최대 규모(807백만 유로)의 현지법인 설립을 발표한 바 있음.

<그림 Ⅳ-4> 대 폴란드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신고금액	0	0	0	6	10	126	34	275	150	68	63	15	49	39	47	98	296	76	105
투자금액	0	1	0	1	5	38	123	50	269	40	49	14	38	17	36	78	227	124	9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46) 통계 집계 방식 차이로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표하는 대 폴란드 해외직접투자액과 일치하지는 않음.

○ 2006년에는 LG전자, LG필립스 LCD 등이 추가로 대형 투자를 잇달아 추진하면서 연간 투자액이 2.3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여 우리나라는 폴란드 투자국 중 6위를 차지하였음.

○ 2007년 대표적인 투자 기업은 SK화학(화학), 디어포스(연마지), 코리아에프티(자동차 연료시스템) 등이 있으며, 2008년에도 신창전기, 유신정밀, 대동시스템 등 자동차 부품산업관련 중소기업이 신규 진출하였음.

○ 폴란드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과 더불어 체코 및 슬로바키아에 각각 현대·기아차 생산공장이 진출함에 따라 폴란드 남부 체코, 슬로바키아 국경에 인접한 카토비체(KATOWICE)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부품 기업의 투자진출이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됨.

□ 폴란드는 우리나라의 19위 투자상대국

○ 2009년 3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 폴란드 직접투자 누계액은 12억 2천만 달러로 폴란드는 우리나라의 19위 투자상대국이며 미국, 네덜란드, 영국 등 선진권을 제외한 개도국 중에서는 7위의 투자상대국(동유럽·CIS 지역 1위)임.

□ 총 투자 90%는 제조업 집중

○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으로 2009년 3월말 기준 11억 198만 달러를 기록하여 총 투자액의 90%를 차지함.

○ 한편, 제조업 중에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표 Ⅳ-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Ⅳ-5> 대 폴란드 제조업 세부업종 투자현황(2009년 3월말)

(단위: 천 달러)

제조업 세부업종	투자액	비중
자동차및트레일러	450,606	41%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444,553	40%
금속가공제품(기계및가구제외)	133,544	12%
화합물질및화학제품	30,179	3%
제1차금속산업	17,410	2%
비금속광물제품	10,364	1%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6,507	1%
가구및기타제품	4,206	0%
전기장비	2,642	0%
섬유제품(의복제외)	1,246	0%
기타기계및장비	682	0%
음·식료품	40	0%
계	1,101,979	1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대우, LG, SK, 삼성 등 대기업 위주 투자

○ 대 폴란드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초반부터 대우그룹의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당시까지 교류가 적었던 한-폴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무역 확대는 물론 국가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LG 전자는 1999년 므와바(Mlawa)에 칼라TV 공장을 설립한 이래 2003년에는 LCD·PDP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확장 투자(2006년 2공장, 2007년 3공장 가동)를 지속하여 폴란드를 유럽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생산기지로서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또한, 2007년 5월에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부품제조업체 등을 포함 7개 공장으로 구성된 브로츠와프(WROCLAW) 소재 'LG Poland LCD Cluster'가 준공되었음.

- 2007년말까지 LG그룹의 투자 누계액은 LG필립스 LCD 1억 4천만 달러, LG전자 브로츠와프(WROCLAW) 법인 5천 500만 달러, LG전자 므와바(Mlawa) 생산공장 1억 2,800만 달러임.

○ SK화학은 2005년 6월 브어추와벡(Wloclawek)에 SK유로켐 공장(연간 생산 12만톤, 고용인원 75명)을 준공함으로써 아시아 국가 중 폴란드에 대규모 화학제품 공장을 투자한 최초 사례가 되었으며, 현지 금융을 활용한 투자 모델로 주목받았음.

【참고 Ⅳ-1】 SK화학의 폴란드 진출 과정

당시 PET CHIP 시장은 아시아·중동에서 초과공급 물량이 초과수요가 있는 유럽시장으로 수출되는 구조였고, 유럽의 반덤핑(anti-dumping) 제소로 한국 생산제품이 수출경쟁력을 상실하여 현지생산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 관세인하효과: 6.5%→3%
- 지분구조: SK화학 53.9%, Anwil 17.4%, LG상사 10%, SK건설 10%, 유럽재건개발은행(EBRD) 8.7%

• 재원조달: 프로젝트 파이낸싱(한국수출입은행, EBRD, 오스트리아 라이파이젠은행, 스웨덴 노르디아은행(前LG페트로은행)

주: Anwil은 폴란드 최대 정유회사인 Orlen의 자회사이며, SK유로켐의 원료 공급처

○ 삼성전자는 바르샤바 판매법인을 통한 가전제품, 휴대폰 판매로 대 폴란드 직접투자를 시작하였고, 2000년부터 100명 규모의 연구팀을 운영하여 디지털 위성·케이블 TV방송수신용 셋톱박스(STB), DVD, HDTV, 디지털카메라, 홈씨어터 장비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하였음.

– 2007년부터는 휴대전화 연구인원을 보강하여 2008년 6월 R&D 센터를 개소하였고, 독일을 거점으로 추진하던 연구개발 전략의 중심을 폴란드로 이동시키고 있으며, 현재 삼성전자 R&D센터는 현지 석박사급 300여명의 연구원을 보유하고 휴대전화의 현지테스트 본부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

<표 Ⅳ-6> 폴란드 해외직접투자액 상위 10개 현지법인
(2007년말 기준)

(단위: 천 달러)

현재 법인명	신고금액	투자금액
DAEWOO-FSO MOTORS CORPORATION	284,500	236,830
DAEWOO MOTOR POLAND CORP.	167,429	133,929
LG PHILIPS LCD POLAND Sp. zo.o.	145,707	140,017
LG ELECTRONICS MLAWA Sp. zo.o.	128,425	128,132
DAEWOO ELECTRONICS MANUFACTURING POLAND Sp. zo.o.	106,606	73,649
DAE-POL COMPANY LTD	80,140	58,280
LG ELECTRONICS WROCLAW Sp. zo.o.	57,226	55,920
SK EUROCHEM Sp. zo.o	47,307	23,985
DONGSEO DISPLAY POLAND Sp. zo.o.	27,560	32,270
HYUNDAI MOTOR POLAND Sp. zo.o.	19,992	19,99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폴란드주재원

2. 대 폴란드 경제협력 방안

가. 유망산업별 투자가능성 진단

□ 자동차산업

○ 폴란드 투자청(PAIilZ) 외국인투자부(Foreign Investment Department)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 폴란드 투자유치 희망분야를 다음 <표 Ⅳ-7>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표 Ⅳ-7> 폴란드 정부의 투자유치 희망분야

분 야	투자유치 및 현재상황 진단
자 동 차 산 업	자동차부품 산업협력 기대(지속적인 투자 희망)
식 료 품 산 업	식품가공 분야의 현대화 추진(신규 투자여력 충분)
정 보 통 신 산 업	대학 및 연구소 중심의 R&D 등 기술협력 가능
전 자 산 업	전자부품 및 소재산업의 기반 확충(IT 융합시스템)
화 학 산 업	기후변화, CO_2 배출 등 환경규제 강화 고려
에 너 지 산 업	원전 건설, LNG 터미널 공사 등 외자유치 계획

자료: PAIilZ

○ 자동차산업은 가장 유망한 투자분야로 분류할 수 있음. 왜냐하면, 폴란드는 1천여개 이상의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폴란드 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수출 위주의 산업 현대화정책을 추진하면서 폴란드 자동차산업의 노동생산성은 2002-04년 중 급격히 향상되어 매우 높은 수준임.

○ 특히, 폴란드는 타이어, 자동차 시트·커버, 전기케이블 및 브레이크 시스템 등 자동차부품 제조의 선두국가로서 엔진제조도 상당한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대부분의 자동차부품 산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산비용과 조세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외국인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 폴란드의 EU 가입이후 Bosch, Valeo, Faurecia 등 유명 외국업체의 자동차 부품산업 진출이 두드러짐.

<표 Ⅳ-8>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 진출현황

자동차 부품업체	주요 생산제품	부품 수요처(자동차업체 등)
Autoliv	에어백, 시트벨트	BMW, Daimler, Chrysler, Ford, Fiat, Opel, VW
Borg Wagner	내연기관(출력장치)	TBC
Bosch	브레이크, 실린더	Fiat, GM, Suzuki, Peugeot
Bridgestone-Firestone	타이어	부속품시장
Goodyear (Debica)	타이어	부속품시장
Delphi	전선, 완충장치	Opel, Fiat, Toyota, Isuzu
Faurecia	시트 (슬라이드)	VW, Ford, Skoda, Fiat, GM
Fiat-GM Powertrain	디젤엔진(1.3리터)	Fiat, Opel
Isuzu Motors	디젠엔진(1.7리터)	Opel
Lear Corporation	시트·커버, 전자부품	Fiat, Volvo, GM
Michelin	타이어	부속품시장
Toyota Motor	엔진, 변속기	Toyota

자료: Global Insight, *Country Reports* 2008.

○ 폴란드 정부는 PSA Peugeot-Citroën의 Lodz 및 Rzeszow 지역에 신규 자동차 제조공장 설립계약을 협상 중인데, PSA는 서유럽 지역이 아닌 동유럽, 러시아, 터키 및 북부아프리카 등의 신흥투자시장을 겨냥하고 있음.

○ 또한, Fiat은 중소형차 및 신모델인 “Topolino”에 투입되는 900cc 가솔린엔진 생산라인을 설치하는 데 5억 8천만 즈워티(2.9억 달러 상당)를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폴란드 자동차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꾸준한 것으로 분석됨.

○ 현재 동유럽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업계에 대한 평판이 호전되고 있으나, 중국, 인도 업계들도 매우 공격적인 생산·판매전략을 구사함에 따라 유럽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참여를 현지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상황임.

○ 글로벌 유동성위기로 폴란드 경기도 둔화될 전망되지만, EU 가입 이후 연평균 10% 이상의 구매력 및 생활수준 상승으로 자동차산업에 대한 전망이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분석됨.

○ 특히, 현지 여론조사기관인 TNS OBOP에 따르면, 폴란드 국민들의 자동차구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는 판매가격(18-29세 중심, 45%), 연비(33%), 광고(29%), 브랜드 인지도(28%), 주위 호평(25%) 등으로 나타나 우리기업의 대 폴란드 자동차 판매전략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우리나라 자동차업계도 체코, 슬로바키아 등 중동부유럽의 자동차 생산법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자동차부품 공급

을 위한 대 폴란드 수출 및 투자 확대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자동차부품 조달, 관리 및 수출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폴란드 유통업체와의 업무제휴를 통한 현지화전략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 자동차부품 산업의 투자확대로 철강, 플라스틱 및 소재산업의 동반진출 가능

○ 우리 정부는 2008년말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여 유망 그린수송시스템 분야를 육성할 계획임. 이에 따라 양국간 그린수송시스템 및 IT융합시스템 분야의 공동기술개발 사업에 공동참여도 협력가능한 분야로 선정할 수 있음.

- 고유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와 더불어 고연비, 저탄소의 미래형 고효율, 친환경 수송시스템에 대한 수요증가로 그린수송시스템에 대한 기술개발 공동참여도 검토가능함.

□ 인프라, 에너지 및 환경 산업

○ PAlilZ 지역협력부(Regional Corporation Department)에 따르면, 2007-13년간 폴란드에 배정된 EU 기금의 규모는 673억 유로로 그간 집행실적이 부진한 편이었으나 2008년 7월 이후 활발하게 집행되고 있는 상황임.

○ EU 기금의 운영프로그램(Operating Program)에서 비교적 비중 있는 분야는 인프라 및 환경(279억 유로, 42%), 지역개발(166억 유로, 25%), 인적자원개발(97억 유로, 15%) 등임.

○ 폴란드의 에너지 소비는 1990년대에 급감하였지만 최근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수요도 확대되어 왔음. 폴란드는 가스 또는 핵연료 발전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로서 발전의 주된 연료원은 석탄(전력수요량의 95% 차지)임(유럽 내에서도 주요 석탄 생산국).

○ 폴란드의 발전량은 현재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력수요 증가, 이산화탄소 배출억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폴란드 정부는 발전능력을 제고할 계획을 수립하고 원전 건설이 논의 중임.

○ 더구나 대부분 수입되는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환경적 요인 때문에 석탄생산의 감축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 러시아에 의존하는 가스수입 경로를 노르웨이, 카타르 등으로 다변화하고 액화천연가스(LNG)를 처리할 가스터미널을 독일 접경지역인 Swinoujscie에 설치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음.

□ 유통·서비스산업

○ 폴란드 유통산업은 민영화가 가장 진전된 분야인데, 민영화율은 1990년의 64%에서 2005년에는 98.6%로 대부분 민영화되었으며, 서유럽 유통업체들의 진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특히, 폴란드 보세창고(warehouse)는 물류산업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2006년 이후 보세창고의 시설이 현대화되면서 폴란드가 중부유럽의 중심 국가로서의 지리적 이점이 부각되고 있음. 바르샤바가 폴란드 내 물류산업의 센터이지만 보세창고

의 제반환경이 개선되려면 도로 인프라 등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어야 할 것임.

○ 폴란드 전역에 걸쳐 서구 스타일의 쇼핑몰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서유럽 의류 및 전자제품 관련 유통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음. 예를 들면, 스웨덴의 글로벌 가구 소매업체인 IKEA는 폴란드 시장에 일찍부터 진출한 유통업체임.

□ 건설부문

○ 인프라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계획과 만성적인 주택부족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은 2000년대 초반 심각한 불황을 경험한 이후에야 점진적으로 투자가 이뤄짐.

○ 2006-07년에는 신규 건설에 대한 수요증가 이외에도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EU 기금의 투자증가로 건설업은 두자리 수의 성장세를 나타내었음. 다만, EU 가입 이후 노동자의 해외이주 현상이 두드러져 숙련노동자 확보 문제가 대두됨.

○ PMR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2009-10년 건설부문에서 부정적인 전망이 예상되는 분야는 주택(응답자의 5% 반응), 보세창고 건축(9%), 사무실 건축(12%) 등인 반면,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도로 건설(88%),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설치(50%), 발전소 건설(35%) 등으로 조사됨.

○ 2012년 유로컵(“Euro 2012”) 공동(우크라이나) 개최로 도로 등 인프라 건설에 대한 수요가 예상되면서 도로, 발전소 건설 등 인프라건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표 Ⅳ-9> 주요 인프라건설 투자유망 프로젝트 예시

인프라 분야	투자유망 프로젝트
공 항	Warsaw 공항 활주로 현대화사업 Poznan-Lawica 공항 현대화사업(확장) Cracow 공항 여객터미널 확장사업
철 도	Wroclaw-Poznan(E59) 현대화사업 Warsaw-Poznan(E20) 현대화사업
도 로	Torun-Strykow(A1) 등 일반도로 건설사업 Gorzow Wielkopolski-Nowa Sol(S2) 등 고속도로 건설사업 Gora Kalwaria-Warszawa 등 순환도로 건설사업
지 하 철	바르샤바 3단계 지하철공사 시공사업
축구경기장	Warsaw National Stadium(2009년 초 입찰 실시계획) Gdansk Baltic Arena(2009년 2-3월 입찰 실시계획)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폴란드주재원, 2008. 6. 3.

○ 한국수출입은행 폴란드주재원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표 V-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바르샤바 주변 공항, 지하철, 철도 및 순환도로 건설사업에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진출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음.

나. 현지투자를 위한 고려사항

□ 산업구조 및 내수시장

○ 폴란드는 도로, 인터넷 등 인프라스트럭처가 미흡하여 현지사업 신규진출 및 경영에 차질이 우려됨. 특히, 교통 인프라 수준이 서유럽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경제발전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분류

되며, 역설적으로 인프라 수준 개선을 위해 투자유인이 발생함.

- 화물 수송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도로사정은 가장 취약한 인프라 가운데 하나이며, 폴란드 정부는 2012년 유로컵(축구대회) 개최 이전에 교통네트워크를 확충하기 위한 도로건설 사업을 계획함.

○ 폴란드는 유럽 TV시장의 전진기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자국내 부품 및 소재산업 기반이 취약하여 부품의 대부분을 중국, 한국 및 대만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나라 전자부품 업체의 진출수요는 기본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상태임.

○ 우리기업들도 제조업 이외에도 외식산업, 금융 등 서비스산업으로의 진출을 고려할 만한 것으로 분석됨.

- 현재 바르샤바에서 운영 중인 16개의 일식 스시식당 가운데 11개 정도를 우리나라 교민이 운영하여 성업 중임.

○ 인구규모(3천8백만) 및 구매력을 감안하면 내수시장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냉장고, 세탁기 및 TV 등 가전제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글로벌 커피전문점인 Starbuks가 폴란드 진출을 결정함으로써 폴란드 소비시장이 규모나 질적인 측면에서 폴란드의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발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폴란드는 아직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개인 신용카드 사용이 활발해진다면 젊은 층의 소비성향이 급증할 것임.

□ 생산인력 확보문제

○ 폴란드는 EU 가입 이후 매년 10% 이상의 인건비 상승으로 현지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소득을 겨냥하여 서유럽으로의 노동력 유출현상이 지속되면서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폴란드는 바르샤바를 제외한 지역의 생활수준 및 노동생산성이 낮은 수준으로 파악됨.

- 휴맥스(Humax Poland)는 폴란드 바르샤바의 R&D Center를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폴란드 현지 우수 연구인력 확보문제로 인하여 동 투자시기를 최근 연기한 사례가 있음.

○ 바르샤바 공단지역인 카토비체(Katowice) 등 우리나라 기업이 이미 많이 진출한 곳에서는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므로 신규 진출기업의 경우에는 현지 인력시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건설업의 호황으로 일용직 인력도 시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FSO[47] 자동차공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직원도 바르샤바 외곽 100km 정도에서 출퇴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현지시장의 수요예측

○ 자동차시장에서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

47)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로 대우의 경영권 유지가 어려워지자 우크라이나 AvtoZAZ그룹(지분 81.59%)에 의해 인수되었음. 최근에는 GM DAT와의 합작회사 설립이 추진되었으나 2008년 6월 GM DAT-FSO 합작투자계약이 결렬되고 위탁생산방식(FSO의 Aveo T250 생산)을 통한 협력방안에 양측은 합의함.

어 신차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는 신규 자동차설비 및 공장건설 등에 대한 투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현재 폴란드 자동차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노동력 부족, 임금 상승, 복잡한 조세체계, 열악한 인프라, 자동차 내수시장 회복 지연 및 통화강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등임.

○ 특정 진출기업이 단일제품을 수출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도 폴란드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유럽 이외에도 아시아, 중남미 및 중동지역 등 세계 전체적인 제품 수요를 예측하는 사전조사가 요구됨.

- 유럽 TV시장은 CRT TV에서 LCD TV로 전환하는 단계로 매년 수요가 5% 정도 증가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세계 경기둔화로 오히려 수요 감축이 예상됨.

○ 또한, 일시적인 요인으로 제품수요가 급증 또는 급감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원료, 원자재의 가격동향과 수급현황을 시의 적절하게 분석하는 것도 현지시장 진출의 주요한 대응방안이 될 것임.

- 폴란드 PET 시장은 2000년 이후 러시아 및 동구권 시장의 수요 증대로 호황을 누렸으나 2005년 이후에는 공급이 수요보다 300만 톤 이상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임.

□ 투자환경위험 진단

○ 한국수출입은행이 평가하는 폴란드에 대한 투자환경위험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3월 기준으로 전반적인 투자환경위험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정상"으로 분류되어 투자환경위험 상황은 우려할 만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평가됨.

○ 폴란드 투자환경위험에 대하여 평가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국가신용등급 및 수용·송금위험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양호함. 그러나 시장동향·제도변화, 단기유동성위험, 기업경영여건 등의 분야는 다소 주의가 요망되는 수준으로 분류됨.

○ 2008년 10월 평가에 비해 악화된 시장통계·제도변화, 단기유동성위험 분야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실물경기 회복여부에 따라 투자환경도 영향 받을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부문은 EU기준 적용으로 외환 및 무역규제가 철폐 또는 완화되는 추세이나, 노동시장에서는 숙련근로자의 서유럽 이주 등으로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 임금상승이 유발되고 결국 제조업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야기함.

- 2008년 하반기 이후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다시 상승추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통화가치 급락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및 환율변동위험이 투자여건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평가됨.

○ 또한, 단기유동성위험에 대한 평가에서는 총수출 대비 총외채 비중, 공적수출신용기관(ECA) 거래실적(연체, 리스케줄링) 부문은

개선되었으나 외환보유액 대비 월평균 수입액, 외채원리금 상환비율(DSR) 및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악화됨에 따라 전체적인 평가는 종전평가에 비해 악화됨.

<표 Ⅳ-10> 폴란드에 대한 투자환경위험 평가결과 요약

		2008.3	2008.10	2009.3	비교평가
투자통계(FDI 유입통계)		37	52	42	개선
국가위험도	국가신용등급	20	20	18	개선
	단기유동성위험	58	54	58	악화
	수용·송금위험	20	20	20	유지
투 자 여 건	기업경영여건	48	52	52	유지
	글로벌경쟁력지수	-	-	50	신규
	시장동향·제도변화	47	47	63	악화
종합평가		39	42	45	악화

주: 평점이 높을수록 나쁘며, 종합평점이 30-40점은 투자환경 위험수준 양호, 40-50점은 위험수준 정상, 50-60점은 위험수준 요주의로 분류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기업경영여건 및 글로벌경쟁력 조사

○ 세계은행 산하그룹의 국제금융공사(IFC)가 2008년 10월에 평가한 기업경영여건 평가[48]에서 폴란드는 지난해 평가보다는 2단계 하락한 전체 평가대상국 181개국(선진국 포함) 중 76위를 기록함. 평가분야별로는 현지금융 조달, 법인 파산제도 및 계약 실행절차를 제외한 7개 비교부문에서 전년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됨.

48) 국제금융공사(IFC)는 2003년부터 매년 "Doing Business: Measuring Business Regulation"을 180개국 내외 국가에 대해 10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고 그 평가순위를 발표함.

- IFC가 평가하는 기업경영여건의 10개 평가 분야 중에서 폴란드의 평가순위가 종전평가에 비해 하락한 분야는 법인 설립절차, 영업 허가절차, 근로자 고용·해고 수준, 재산 등록(부동산 취득 포함), 투자자 보호 제도·법규, 조세부과 수준, 수출입 절차(제한)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폴란드의 "법인 설립절차", "영업 허가절차" 및 "조세부과 수준"에 대한 평가순위는 181개국 중에서 140위권 이하에 머물러 있어 대 폴란드 현지진출에 있어 신중한 사전점검이 요망됨.

○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경쟁력지수(GCI)[49]에 따르면, 폴란드는 2008년 평가에서 평가대상 134개국 중 53위를 기록해 전년의 51위에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GCI의 12개 분야별 종전대비 평가결과를 요약하면, 거시경제안정성, 인력관리(연수 포함), 상품시장 효율성, 기술수준, 시장규모 및 기업 발전수준 분야에서는 개선되었으나 제도(정책·시스템), 인프라스트럭처, 보건·교육,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발전수준 및 혁신 분야에서는 악화된 것으로 조사됨.

- 악화된 분야에서는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으나 개선된 분야 중에서는 "시장규모"가 134개국에서 20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49) World Economic Forum이 134개국에 대하여 인프라, 시장효율성,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Global Competitiveness Index(GCI)를 발표함.